

2/ 2020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재생의 역설: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퇴거*

김은혜



일본 올림픽뮤지엄에서 바라본 신(新)국립경기장의 모습(2020. 2. 21. 촬영: 필자)

김은혜(金銀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히토쓰바시(一橋)대학과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일본학술진흥회(JSPS) 외국인 특별연구원(Post-doc) 등을 역임했다. 주요 공저로는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안전사회 일본의 동요와 사회적 연대의 모색』, 논문으로는 「1964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개조」, 「1980年代韓國のスポーツメガイメントと江南づくり」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통보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4/ILBI.2020.23.50>

1. 문제제기: 신국립경기장 건설

2013년 9월 일본은 3.11 동일본대진재를 극복한다는 ‘부흥’(recovery)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메가 이벤트(sports mega-events)는 개최 도시의 스포츠·레저 시설과 공원, 공연 주택 등 공공공간(public space)과 물리적 인프라까지 많은 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게 된다.¹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지는 도쿄 베이 존(Tokyo Bay Zone)과 헤리티지 존(The Heritage Zone) 두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신국립경기장 건설은 신주쿠구(新宿区)에 위치한 ‘헤리티지 존’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원래 1958년 건립된 국립가스미가오카 육상경기장(国立霞ヶ丘陸上競技場)이라는 정식 명칭의 구경기장은 1959년 아시안게임과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전후 일본의 국가적 스포츠 행사들이 개최되었던 스포츠 유산(legacy)이었다.

일본은 기존 국립경기장을 해체하는 대신 같은 위치에 약 6만 8,000명(8만 명 대응, 면적 11만 3,000㎡)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신(新)국립경기장(New National Stadium Japan, 가칭)을 2019년에 11월 준공했다. 주변 메이지신궁 외원(明治神宮外苑, Meijijingu Gaien)과 함께 이 일대는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최근 이 지역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일본올림픽뮤지엄이 건설되는 등 주변 공간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² 2013년 9월 7일 도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후, 도쿄에서는 올림픽 개최 준비와 도시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시도와 구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반면 올림픽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친숙한 주거공간으로부터 쫓겨나는 등 대규모의 슬럼 철거(slum clearance)나 퇴거(displacement)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³

1 Holger Preuss,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A Comparison of the Games, 1972-2008*, Edward Elgar Publishing, 2004, p. 92.

2 박삼현, 「근대일본 ‘국체(國體)’ 관념의 공간화: 도쿄의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권 11호, 2009, 33~58쪽; 박해남, 「제국과 식민지 간 재현 경쟁의 장, 스포츠: 조선신궁체육대회와 메이지신궁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한립일본학』 제26권, 2015, 111~140쪽.

3 Solomon J. Greene, *Staged Cities: Mega-events, Slum Clearance, and Global Capital*, Yale Hum. Rts. &

올림픽 개최 결정 직후인 2013년 10월 하순 도쿄도(東京都,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MG) 건설국(建設局)의 직원들은 도립(都立) 메이지 공원의 텐트촌(テント村)에 거주하는 노숙자(露宿者, homeless)⁴에게 공사를 예고하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권고해 왔다. 즉 기존 구국립경기장의 해체 및 확장 공사가 최종 결정되면서 경기장 주변 4만㎡ 부지마저도 해당 공사에 추가되었던 것이다. 또한 도쿄도는 2016년 7월 4일 인근 도영(都営)주택 가스미가오카아파트(霞ヶ丘アパート)에 대한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결과, 거주자들(퇴거 당시, 총 230세대)은 오랜 세월 동안 정들었던 주택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two lost decades)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경험하면서 대도시권 도심⁵의 지가(地價)가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중대형 맨션(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도심 인구의 증가로 지가는 크게 회복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대도시권의 도심회귀(都心回帰) 혹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과정은 과거 도시에 거주했던 중하층계급의 ‘퇴거’를 촉진시키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를 위한 신국립경기장 건설은 해당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경향과 맞물리면서, 주거 약자(Underprivileged Group, 노년층, 원주민 등)를 공공공간(public

Dev. LJ, 6: 161, 2003, pp. 161~187; 남상우·권오석, 2008, 「올림픽과 거주지의 관계: 도시개발, 강제 퇴거 그리고 소수자들의 주변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권 2호, 2008, 381~400쪽.

- 4 흔히 노상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 노숙자, 홈리스, 부랑자, 노숙생활자, 노숙노동자 등 긍정적 혹은 차별적 의미를 담은 호칭이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노숙자 및 관련 활동가들의 인터뷰 중에도 ‘노숙자’(野宿者)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희망해서 이를 따르고자 한다. ‘홈리스 관련 법률 및 제도’ 등 처럼 행정적 용어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용(日雇)노동자, 공원과 기차역 등 공공공간에 박스, 작은 집(小屋), 텐트 등을 짓고 노숙상태로 생활(survive)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숙이라는 현전(現前)의 사실만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青木秀男, 「権力と社会運動: 野宿者運動の問い(都市下層の労働と政治)」, 『理論と動態』 3, 2010, 87~106쪽; 山北輝裕, 『質的社会研究シリーズ7 路の上の仲間たち: 野宿者支援・運動の社会誌』, ハーベスト社, 2014, 1쪽.
- 5 최근 일본의 대도시권(5대: 東京-大阪-名古屋-福岡-札幌)에서 도시의 변화와 초고층화에 대한 오피스빌딩과 분양맨션 등에 대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다. 도쿄의 도심이란 좁게는 도심 3구(지요다구·주오구·미나토구(千代田区・中央区・港区))와 넓게는 도심 5, 7, 10구 식으로 부도심을 포함하면서 확대된 범위로 표현된다. 특히 도심회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거대한 도쿄권(1도 3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할 때는 교외로 뻗어 나가는 각종 철도 노선의 결정점으로서 야마노테선(山手線) 중심의 도쿄 23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space)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헤리티지 존의 도심 재개발이 고층빌딩의 급증과 다층적인 퇴거 현상을 촉진하는 과정을 다중스케일(multi-scalar)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중스케일이란 인간의 몸(body)으로부터 글로벌(global) 수준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신국립경기장 건설이라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변화가 다른 스케일의 사회적 활동과 연결됨을 의미한다.⁶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심 내의 공간적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고층빌딩화로 인한 폐쇄적인 빗장도시(gated city)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요세바'(寄せ場, the day-labour market)가 도시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 공존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개최된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도시재개발이 공공공간(공공주택, 공원 등)을 축소시키는 한편,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⁷ 과정에서 공간 재편(rescaling)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화하는 도쿄 도심

1)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신국립경기장과 주변의 재개발

영미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이론적 지형은 크게 개방(開放)도시론(emancipatory city thesis)과 보복(報復)도시론(revanchist city thesis)으로 양분되었다.⁸ 먼저 개방도시론은 도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회적 접촉이 증가되

6 Derek Gregory et al.,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2011, pp. 664~666.

7 Shenjing He, "State-sponsored Gentrification Under Market Transition: The Case of Shanghai," *Urban Affairs Review* 43(2), 2007, pp. 171-198; Justus Uitermark et al., "Gentrification as a Governmental Strategy: Soci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in Hoogvliet, Rotterda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1), 2007, pp. 125~141; Paul Watt, "Housing Stock Transfers, Regeneration and State-led Gentrification in London," *Urban Policy and Research* 27(3), 2009, pp. 229-242; Adrienne La Grange and Frederik Pretorius, "State-led Gentrification in Hong Kong," *Urban Studies* 53(3), 2016, pp. 506~523.

8 鯉坂学 外, 「『都心回帰』時代の東京都心部のマンション住民と地域生活: 東京都中央区での調査を通じ

면, 전문직, 예술가 등을 포함한 도시의 관용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창조계급론’(creative class)과 연결된다. 캐나다 도시의 경험에서 레이(David Ley) 등의 학자들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 및 새로운 가치와 열망을 지닌 새로운 중산층의 형성에 주목했다. 1980~1990년대 서구에서는 교외지역의 단조로움에 대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심에 대거 재진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1960년대 히피(hippie)가 일으킨 문화적 반란의 일부처럼 간주되었고 멋진 와인바, 커피숍, 레스토랑, 서점, 의류 부티크 및 다양한 문화시설의 소비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⁹

반면, 보복도시론[revanch(프랑스어)=revenge에서 온 말]은 교외에 살던 중간계급이 돌아와 도시를 재점유하면서 기존 빈곤층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도시재개발 과정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비판지리학자 스미스(Neil Smith)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을 ‘지대격차’(rent-gap)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잠재적 지대 수준과 현재의 토지 사용 중에서 실현된 실제 지대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도시의 중심지와 인접한 동네, 일련의 가치 하락이 거의 끝나 가는 동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재활성화가 시작되는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및 후원과 민간 개발업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¹⁰ 그러나 최근 논의는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하기보다는, 기존 영미권 중심의 도시화 논의를 해체하자고 제안한다. 이미 현실에서는 이른바 전 세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행성적 젠트리피케이션

て, 『評論·社会科学』 111, 2014, 4-6쪽; 신현준·이기웅, 「서장: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개발주의 이후의 도시」,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2016, 25~49쪽.

9 David Ley, *The New Middle Class and the Remaking of the Central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Jon Caulfield, *City Form and Everyday Life: Toronto's Gentrification and Critical Social Practi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Richard Florida,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2005 (이원호 외 옮김, 『도시와 창조 계급』, 푸른길, 2008).

10 Loretta Lees, "The Emancipatory City: Urban (re) Visions," *The Emancipatory City*, 2004, pp. 3~20; Neil Smith,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Routledge, 1996(김동완 외 옮김, 『도시의 새로운 프런티어: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강탈』, 동녘, 2019, 126~131쪽).

(planetary gentrification) 개념마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적인 역사와 맥락에 따라 논의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¹¹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결합되어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은 이스트엔드(East End)에서 기존 낙후된 지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정부-지자체가 결합된 국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퇴거와 저항(displacement and resistance)이 발생했다. 예컨대 카펜터스(carpenters) 단지처럼 공공주택의 외주화 및 민영화를 통해 저소득층 거주민이 쫓겨난 자리에 중산층 거주민이 유입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이 발생한 결과, 철거된 공공주택의 거주민들은 주거복지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¹² 일본은 실제로 ‘작은 국가’를 지향하지만, ‘강한 발전국가’(the strong developmental state)¹³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발전국가적 개입(developmentalist intervention)은 유사성과 특수성이 교차되는 상황이다. 박배균과 두셋(Jamie Doucette)은 동아시아에서 도시 발전주의가 갖는 특징으로서, 지정학적 경제와 경제특구(Economic Zone)와 같은 일종의 법적-제도적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예외공간(Space of Exception), 그리고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한 권위주의를 제시하고 있다.¹⁴

한편,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도쿄 도심에 고층빌딩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도시를 연구하는 왈리(Paul Waley)는 최근 도쿄의 변화

11 Loretta Lees, Hyun Bang Shin, and Ernesto López-Morales, *Planetary Gentrification*, John Wiley & Sons, 2016.

12 Paul Watt, “It’s not for Us’ Regeneration, the 2012 Olympics and the Gentrification of East London,” *City* 17(1), 2013, pp. 99~118; 이향아, 「01 영국 런던올림픽과 이스트엔드 도시재생」, 민유기 외, 『세계의 지속가능 도시재생』, 국토연구원, 15~60쪽.

13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14 Jamie Doucette and Bae-Gyoon Park,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Geopolitical Economies, Spaces of Exception, and Networks of Expertise,” *Critical Sociology* 44(3), 2018a, pp. 395~403; Jamie Doucette and Bae-Gyoon Park, “Introduction: Interrogating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Developmentalist Cities? Interrogating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Brill, 2018b, pp. 1~16.

를 젠트리피케이션의 4종의 유형론(Four-fold typology of gentrification)으로서, i) 슬러시 앤 빌드(slash-and-build), ii) 동양화하는(orientalising), 3) 타워 블럭(tower-block), 4) 논바닥(rice-paddy)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표현했다. 세계도시 도쿄론으로 유명한 도시사회학자 마치무라 다카시(町村敬志)도 “누가 도쿄에서 도시 경관의 또 다른 미래를 빼앗았는가?”라는 문제제기로 비판적 흐름에 힘을 실었다. 마치무라는 최근 일본의 젠트리케이션 현상을 금융화(financialization), 국가주도 신자유주의 정책(state-led neoliberal policy),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데올로기(the ideology of “livable city”) 가운데 ‘타워-블럭 젠트리피케이션’(tower-block gentrification) 개념을 적용해서 일본식 표현인 ‘(초)고층맨션화, 혹은 타워맨션’이 확산되는 현상을 비판했다.¹⁵

일본에서 초고층맨션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건축기준법상 안전 기준이 정해진 ‘높이 60m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경제 연구소에 의하면 초고층맨션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건설이 증가하면서,增高가 되더라도 가격폭락은 쉽지 않고 환금성이 높은 이유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조사회사 ‘도쿄 가테이’(TOKYO KATEI)에 의하면 1976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수는 35만 9,001호(1,371동)으로 예측되는데, 도쿄도(都)가 전체 중에서 30%로 최대이며 도쿄권(1도 3현)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거의 30여 년 간 직주근접형(職住近接型) 도심 재개발 담론을 주도해 왔던 모리빌딩(森ビル) 계열의 모리트러스트(Mori Trust Co, Ltd)주식회사는 198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무소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오피스빌딩에 대한 「도쿄 23구의 대규모 오피스빌딩 시장 동향 조사」를 지속해 왔다.¹⁶ 이에 따르면 도쿄 23구 전체의 2020년 오피스빌딩 공급량[이하, 공급량(비율)]은 조사 개시 이래 두 번째로 많지만, 2021~2022년에는 낮은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과거평균과 유사

15 「タワーマンション(超高層マンション)」, 『朝日新聞』, 2019. 11. 13.; Paul Waley, “Speaking Gentrification in the Languages of the Global East,” *Urban Studies* 53(3), 2016, pp. 615~625; 町村敬志, 「誰が東京を奪ったのか?: 都市空間変容の半世紀から考える」, 『日本都市社会学会年報』 35, 2017, 5~22쪽.

16 森トラスト株式会社, 東京23区の大規模オフィスビル市場動向調査2019(2019. 4. 15.), <https://www.mori.co.jp/company/press/release/2019/04/20190416153000003869.html> (최종 검색일: 2020. 5. 5.)

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도심 3구의 공급 비율은 향후에도 5년간 매년 70% 이상으로 예상되며, ‘대규모화’와 ‘도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심 3구의 개발용지별 공급동향은 ‘리모델링’이 공급의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저/미개발지, 재개발지’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 집계의 추이는 약 50%를, 도심 3구 이외 지역은 70%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작년 2019년 4월 1일 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도쿄 23구의 공급지역별로 경향을 살펴보면, 물론 도심3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는 시부야구(渋谷区)에 공급이 유지되면서 상당한 개발의 존재감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도시재생사업에는 장기간 정체되었던 일본경제의 재생을 견인하는 역할이 부여되는데, 시부야역 주변은 국제전략총합특구의 하나로써 2011년도에 도쿄 중심부에 지정된 6개의 아시아헤드쿼터특구(the Special Zone for Asian Headquarters)의 한 지역이었다.¹⁷ 흔히 2000년대 이후 도쿄의 도시재생은 ‘대량 오피스빌딩에 대한 대량공급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와 오피스 빌딩을 촉진하는 건설자본과 결합된 발전국가적 예외성이 부여된 ‘특구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지대격차 추구’ 행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먼저 올림픽 신국립경기장 건설을 둘러싼 2016년과 2020년 계획 변경을 확인해 보자. 1999년 등장한 이시하라(石原慎太郎) 도정은 도쿄만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2016년과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계획했던 도쿄도정의 맥락이 존재한다. 당시 올림픽 계획에는 공공(사회)주택을 위한 공급 계획은 전혀 없었고, 대부분 물리적 인프라 재구축 계획으로 여론의 거센 비

17 「東京23区の大規模オフィスビル市場動向調査2020(2020.05.25)」, <https://www.mori.co.jp/company/press/release/2020/05/20200525110000004052.html>: ‘アジアヘッドクォーター特区’, https://www.senryaku.metro.tokyo.lg.jp/invest_tokyo/japanese/invest-tokyo/ahq.html(최종 검색일: 2020. 5. 26.)

18 김은혜·박배균,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공간과 사회』 26(2), 2016, pp. 10~43.

판을 받게 되었다. 원래 2016년 올림픽 개최 계획에서 국립경기장 신설 위치는 도쿄 베이 존이었지만, 개최 비용 급증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당 신설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결국 2020년 유치 계획에 기존의 국립경기장을 해체한 자리에 신국립경기장을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수렴되었던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¹⁹

2020년 도쿄 올림픽은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 정책하에서 도심의 하층계급과 도심의 기념비적 경관(monumental landscapes)이자 랜드마크(landmark)의 재배치 등처럼 일본사회의 문화적-상징적 맥락과도 깊이 연결된다. 올림픽 개최에서 가장 상징적 건축물인 ‘국립경기장 설계안’은 국제 현상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데, 일종의 글로벌 브랜드와 스타 건축가를 기용해서 도시의 스펙터클을 재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²⁰ 2012년 11월 15일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스포츠진흥센터’(Japan Sport Council, 이하 JSC)에서 추진한 국제 현상 공모에서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의 설계를 담당했던 이란 출신의 세계적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 설계의 건설안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두 개의 거대한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하디드 설계안의 총공사비가 무려 2,651억 엔까지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해당 설계안을 일본 국내와 해외의 건설업계에서도 ‘거대한 무용지물’(gigantic white elephant)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다.²¹ 일본 건축계 원로 건축가로서 1993년 프리츠키상(Pritzker Architectural Prize)을 수상한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Fumihiko Maki)를 비롯한 일본 건축·문화계는 자하 하디드 설계의 건설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메이지신궁 외원(外苑)을 둘러싼 경관 파괴에 대한 이의 제기 성명서를 제출하고 반대 심포지엄을

19 김은혜, 「2016년 도쿄 올림픽의 좌절과 도시의 정치경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1(3), 2011, 66~103쪽.

20 Tomoko Tamari, “Star Architects, Urban Spectacles, and Global Brands: Exploring the Case of the Tokyo Olympics 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28(1), 2019, pp. 45~63.

21 Justin McCurry, “Tokyo Split over Zaha Hadid’s Gigantic White Elephant Olympic Stadium,” *The Guardian*, 15 September, 15, 2017.

개최하기도 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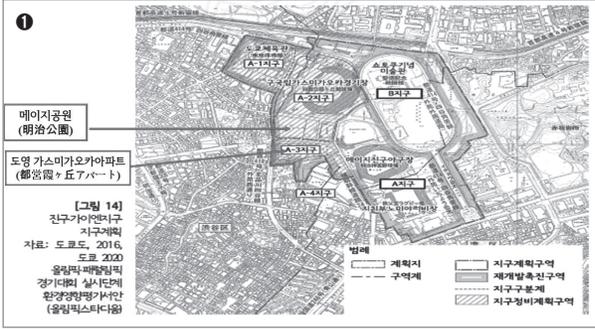
더욱이 하디드의 설계안에 대한 비판에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도 더해졌다.²³ 일본의 제이콥스(Jane Jacobs)라 할 수 있는 모리 마유미(森まゆみ)도 행정적 책임 소재 논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광범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그녀는 지역 잡지 『야네센』(谷根千, 1984~2009년 종간)의 편집장을 역임한 작가이자 시민운동가로 유명한 인물이다.²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도쿄의 야네센(谷根千)은 야나카(谷中), 네즈(根津), 센다기(千駄木) 세 곳의 지명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야네센은 사회학자 르블랑(Robin LeBlanc)이 제기한 ‘자전거 시민들’(bicycle citizens) 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에서 일상생활(everyday life)의 공간이자 도쿄의 토착적인(Tokyo vernacular) 서민들의 공간으로서 칭송되었던 배경이 있다. 바로 그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모리 마유미에 의해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도쿄의 토착성이 올림픽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거나 파괴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신국립경기장에 대한 기존 하디드 설계안을 전면적으로 철회했다. 2015년 12월 총공사비 상한 1,550억 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후 제2차 현상공모를 진행했는데, ‘다이세이(大成, Taisei)건설·아즈사(梓, Azusa)설계·구마 겐고(隈研吾, Kuma Kengo) 팀으로 구성된 A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계획안에는 인접한 철도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스미가오카 아파트 철거지의 공원화와 신국립경기장을 연결하는 데크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안을 포함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논란으로 인해 해체가 지체되어 인근 공공공간(메이지 공원과 도영 주택 등)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현재 A-4지구

22 横文彦·大野秀敏 編, 『新国立競技場, 何が問題か: オリンピックの17日間と神宮の杜の100年』, 平凡社, 2014.

23 Paul Waley, “Who Cares about the Past in Today’s Tokyo?” *Urban Spaces in Japan: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2012, p. 159; Jordan Sand, *Tokyo Vernacular: Common Spaces, Local Histories, Found Objec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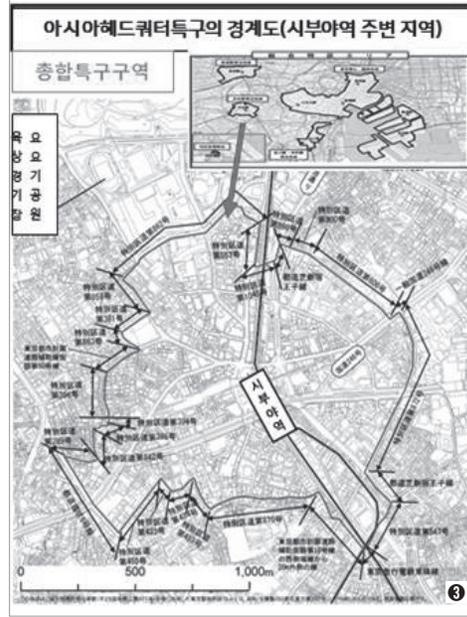
24 森まゆみ 編, 『異議あり!新国立競技場: 2020年オリンピックを市民の手に(岩波ブックレット No. 895)』, 岩波書店, 2014.



〈그림 1〉 신주쿠가이엔지구 지구계획
 출처: 민승현·장민영, 『(2016-UR-24 Working Paper) 도쿄 2020 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도시변화 진단』, 서울연구원, 2016, 24쪽.



〈그림 2〉 신주쿠구(Shinjuku Ward) 신국립경기장 예정지(2015. 8. 15. 당시 모습) © Kyodo News
 출처: “Japan Eyes Capping Cost of Olympic Stadium at ¥155 Billion, Kyodo,” *The Japan Times*, Aug. 27, 2015.



〈그림 3〉 아시아헤드쿼터특구의 경계도(도쿄 전체→시부야역 주변 지역 확대)
 출처: 「アジアヘッドクォーター特区」, https://www.city.shibuya.tokyo.jp/kankyo/machi/shibuya_eki/ahq.html(최종 검색일: 2020. 5. 1.).

는 일본올림픽뮤지엄(Japan Olympic Museum)이 화려하게 개관했으며, 일본올림픽위원회(Japanese Olympic Committee, 이하 JOC) 신(新)회관과 일본청년관 홀, 그리고 JSC본부 등이 차례로 건설되었다(〈논문 표지 그림〉). 결국 신국립경기장의 재건축은 신주쿠-시부야에 걸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낙후된 듯 해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이 주변 지역을 빠르게 변모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그림 1, 2, 3〉).

2) 도쿄 도심의 새로운 빈곤층과 주거권의 한계

2002년 일본에서 최초로 노숙자에 한정된 법률로서 ‘홈리스의 자립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이에 맞춰 2003년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는 일본 전국에 산재한 노숙자 수가 2만 5,296명으로 공표되었다.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노숙자가 급증한 배경은 경기 불황과 같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구인 격감이 컸다. 일본 3대 요세바인 오사카시-가마가사키(大阪-釜ヶ崎), 도쿄-산야(東京-山谷), 요코하마-고토부키초(横浜-寿町)와 같은 공간적 집중은 점차 쇠퇴해 갔다. 또한 노동자 층의 고령화와 함께 생활보호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지원 운동은 '구제'에 중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재구조화 속에서 급변하는 노동의 현실에 대응할 만한 복지 행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노동력의 '계층 분화'는 도심공간의 변화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렇듯 도심에서 노숙자수의 가시적인 증가세는 사회학자 이리에 기미야스(入江公康)가 제기한 '요세바화하는 도시'라는 비판 담론을 낳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와 경제의 변동과정에서 노동문제가 부상하면서 이러한 비판 담론은 크게 일반세대의 모자(母子) 세대화, 사회 전체의 요세바화, 국내 제3세계 등으로 수렴되었다. 과거 일본형 고용 관행이 포함했던 남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 외국인, 빈곤층, 장애인 등이 모두 복지의 경계에서 그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²⁵ 더욱이 노숙자 운동은 '노동쟁의'보다는, '식사 배식'(炊出し)과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대상'으로 변화되면서, 관련된 지원과 운동의 방향도 확실한 성과를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²⁶

그런데 특조법 체제가 시작되면서 '기본방침'에 따른 노숙자 타입별 분류작업에 바탕하여 자립지원센터, 긴급 시 임시로 숙박 가능한 쉼터(shelter), 생활보호를 조합한 지원 시스템 등이 가동되면서 도심 내 공원의 풍경도 급변했다. 시(市) 직원에 의한 반복된 순회와 설득 작업을 통해 쉼터에 입소하거나 생활보호 수급을 받는 등의 행정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노숙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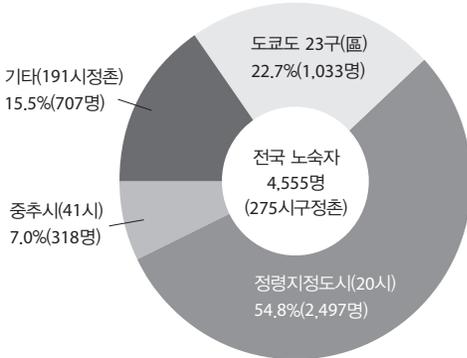
25 아미야 가린, 김미정 옮김, 『살게 해줘!: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미지북스, 2017, 293쪽.

26 青木秀男, 「権力と社会運動: 野宿者運動の問い(都市下層の労働と政治)」, 『理論と動態』 3, 2010, 96쪽.

〈표 1〉 전국의 노숙자 수

연도	남	여	불명	합계	증감
2015	6,040	206	295	6,541	-
2016	5,821	210	204	6,235	306(4.7%)
2017	5,168	196	170	5,534	701(11.2)
2018	4,607	177	193	4,977	557(10.1%)
2019	4,253	171	131	4,555	422(8.5%)

출처: 「平成31年ホームレスの実態に関する全国調査(概数調査, 2019年 1月)」,
https://www.mhlw.go.jp/stf/newpage_04461.html(최종 검색일: 2020. 5. 10.).



〈그림 4〉
2019년 전국 노숙자의 구조

공원 내에 마련한 작은 거처들(작은 집, 텐트, 박스 집 등)에 대한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제는 도심 내에는 노숙자들에 의한 작은 거처의 설치도 거의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의 주거지역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 혹은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마저 점차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 노숙자 수는 2007년 전국조사 기준으로 1만 8,564명까지 감소했다. 물론 감소된 수치는 특조법이 정하는 홈리스 기준에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을 이유 없이 기거 장소로 삼아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특조법 이후 노숙자에 대한 분류, 지원, 배제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 한편, 이후 〈홈리스의 자립의 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2015년 3월 23일,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 고시 제1호)에 기초해서 〈홈리스의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추정조사, 시구정촌 순회 조사 방식)가 실시된다. 가장 최근 통계로서 2019년 1월 조사(〈표 1〉, 〈그림 4〉)에 의하면, 275시정촌에 4,555명으로 전년도 대비 422명(8.5%) 감소했다. 홈리스 최대 지역은 도쿄도가 1,126명, 오사카부 1,064명, 가나가와현 899명 순이었는데, 주요 거주 장소로는 도시공원(22.7%), 하천(30.3%), 도로(18.7%), 역사(駅舎, 5.2%), 기타 시설(23.1%)로 분포

〈표 2〉 도쿄도 도시정책(주택)의 특징

정책 전반의 방향성		주택 정책의 방향성	공영주택의 위치
미노베 도정 (美濃部亮吉, 총3기, 1967. 04. 23.~1979. 04. 22.)	자본의 논리에 대항으로 시빌 미니멈 설정, 생활환경의 장으로서 도시만들기	저소득자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스즈키 도정 (鈴木俊一, 총4기, 1979. 04. 23.~1995. 04. 22.)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도시재개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와 의 연동, 중저소득자에 대 한 지원, 민관 연계	공급과 질의 향상, 상대적 비중은 저하
이시하라 도정 (石原慎太郎, 총4기, 1999. 04. 23.~2012. 10. 31.)	위기적 상황의 돌파, 도시재생의 추진	도시재개발의 요소로서 주택, 민간 주도	세이프티 넷, 사회문제의 장

출처: 高木恒一, 「都市政策のなかの住宅問題: 東京都における住宅政策の変遷(特集 現代都市の社会学)」, 『季刊lichiko: A Journal for Transdisciplinary Studies of Pratiques』 126, 2015, 65쪽, 일부 재구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병원과 시설에 입소한 노숙자와 간이숙박업소인 도야(ド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숙박하며 생활하는 넓은 의미의 노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숙자 지원 NPO가 ‘중간시설’ 등을 설립해서 자립과 안정을 도모한 것이 노숙자 감소의 이유 중 하나였다. 오사카 ‘NPO 가마가사키(釜ヶ崎)지원기구’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NPO법인 홈리스지원전국네트워크’의 단체 회원은 2012년 11월 시점에 69개 단체에 이르렀다. 1990년대 반실업운동은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임시 야간 긴급피난소의 상설화’ 등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지원 단체들의 방침이 국가와의 ‘대립형’에서 ‘협조형’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정책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중첩되면서 도심 내 주거 약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에 있었다.²⁷ 도시사회학자 다카기 고이치(高木恒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년 간의 도쿄도 주택정책 전반의 특징을 제시했다(〈표 2〉). 먼저 1970년대 일본 혁신지자체의 대표격인 미노베 료치키(美濃部亮吉) 도정의 경우,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을 통해

27 박지환, 「운동에서 복지로?: 오사카시 가마가사키(釜ヶ崎) 노숙인 지원운동의 전개와 변형」,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3호, 2013, 73~114쪽; 山北輝裕, 『質的社会研究シリーズ7 路の上の仲間たち: 野宿者支援・運動の社会誌』, 5~7쪽.

서 생활환경의 장으로서 도시 만들기를 설정해 왔다.²⁸ 반면, 혁신 도정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반격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도정은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대대적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1980-90년대 버블경제기의 성쇠를 함께하면서 개발주의 도정을 표방해 나갔다.

원래 과거 공적인 주택공급을 담당하던 일본주택공단은 ‘도시재생기구’(UR)로 개편되었다. ‘고령자·저소득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지방자치체가 담당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의 월세 주택’으로 구분해서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입장 선화와 함께 과거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임대주택자금대부 및 주택용자보험 업무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점이였다.²⁹ 대신 민간 주도의 주택정책이 촉진된 결과,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존의 고용과 사회보험의 보장이나 사회안전망(safety net) 등처럼 사회복지에 걸리지 않는 일련의 주거 불안정 계급들이 등장했다. 고령자, 노숙자, 젊은층 등까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새로운 위험한 계급(the new dangerous class)이 사회문제의 장에 나타났다.³⁰ 도쿄의 새로운 도시빈곤층은 평소 도심 주변부(edges)인 공원, 강변 등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도쿄 올림픽 유치 이후 이처럼 공공공간(public space)에서 퇴거당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는 도쿄도 시부야구에 위치한 구립 미야시타 공원(区立宮下公園)인데, 전전(戰前)부터 있던 이 공원은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후 지하 배수로 공사 등을 통한 도쿄 최초의 공중 공원으로 유명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공원에 거주했던 노숙자들이 13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2008년 무렵 시부야구가 이 공원을 나이키 재팬(Nike Japan)

28 高木恒一, 「都市住宅政策の「問題」は何か?: 東京23区を事例として」, 『グローバル都市研究』 7, 2014, 69~83쪽; 이지원, 「일본의 미노베 혁신도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형성과정 비교」, 『비교일본학』 28, 2013, 49~72쪽.

29 高木恒一, 『都市住宅政策と社会-空間構造: 東京圏を事例として』, 立教大学出版会, 163쪽.

30 Guy Standing, 김태호 옮김,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 2014(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2011); Jamie Peck, "Political Economies of Scale: Fast Policy, Interscalar Relations, and Neoliberal Workfare," *Economic Geography* 78(3), 2002, pp. 331~360.

에 매각한 뒤 결국에는 ‘미야시타 나йки 파크’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례는 도쿄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데 일종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³¹ 이처럼 도심 내 공공공간의 축소와 사유화의 문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비판하고자 일본과 해외 공간연구자들은 2018년 3월 24일(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후 현지조사로서 미야시타공원과 그 주변의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시부야구청 앞으로 일시 이전했던 ‘간이무료급식소’를 방문해서 노숙생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지속해가고 있다.³²

3. 도시의 주거 마이нер리티: 가스미가오카아파트와 메이지공원

먼저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도영(都營)주택³³의 퇴거 문제를 살펴보자(〈그림 1〉, A-3지구). 먼저 도영주택이란 공공주택 가운데 공영주택법에 기초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분양(分讓)주택이 아닌 ‘임대 집합주택’(賃貸の集合住宅) 방식이다. 각 관리 주체별로 도영, 구영(区營), 시영(市營)주택으로 칭하며, 도영주택은 가족과 단독가구(単身者)용의 주택으로 구성된다. 단독 입주는 도쿄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거주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31 Chikako Mori, "Social Housing and Urban Renewal in Tokyo: From Post-War Reconstruction to the 2020 Olympic Games," *Social Housing and Urban Renewal*, Emerald Publishing Limited, 2017, pp. 277~309; Christian Dimmer, "Miyashita Park, Tokyo: Contested Visions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Urban Japan," *City Unsilenced*, Routledge, 2017, pp. 199~213; 신지은·조정민, 「공공 공간에 대한 사적 개입과 전환: 도쿄 공공 공원의 사유화와 공원 휴리스의 공간 실천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7, 2013, 443~482쪽.

32 "Planetary Gentrification in the East Asian Context: Theory and Case Studies, The Conference organized by Post Urbanism Project"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公益財団法人村田学術振興財団研究助成, 「ポスト・アーバンイズム理論の構築: 21世紀の複合的都市研究のために」(研究代表者: 平田周), 科学研究費・基盤(B), 「ポスト成長期のオリンピックに関する地理学的研究: メガイベントを通じた都市変容分析」(17H02432), 科学研究費・若手(B), 「都市下層労働者のモビリティと対抗運動の動態: 場所概念の新たな可能性」(16K16955).

33 東京都住宅政策本部/都営住宅に関すること(最終更新日: 平成30(2018)年 11月 27日),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keiei/260toei1.htm(최종 검색일: 2020. 5. 5.).

한부모 세대, 고령자, 심신장애를 가진 세대에 대한 우대 추첨이나 포인트 방식으로 모집된다.

신국립경기장과 퇴거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스미가오카아파트를 생각하는 모임〉(霞ヶ丘アパートを考える会)에 게재된 관련 자료들을 참고했다.³⁴ 원래 가스미가오카아파트는 고도성장기에 개최된 1964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이 깊다. 가스미가오카아파트는 1960~1966년 사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데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3~5층 건물의 10동이 착공되었는데, 기존 목조 연립주택을 ‘철골 콘크리트’, ‘서양식 화장실’을 갖춘 주택으로 재건축된 것이었다. 이처럼 1964년 올림픽 개최 당시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들뜬 기분이었다고 기억했던 반면, 2020년 올림픽 개최는 ‘퇴거 통지’로 거주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매스컴에 소개된 〈퇴거 사례 1〉 여성 고령자 A 씨(1926년생, 90세)는 목조 연립주택인 나가야(長屋) 시절부터 거주했던 이 지역의 토박이었다. 시타마치(下町) 후카가와(深川)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전시(戰時)에 만주 철도에 근무하면서 중국 다롄(大連)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후 귀국해서 도쿄도 주택국(현재, 도시정비국)의 직원이 되어, 남편과 사내 결혼을 통해 도영주택의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런데 올림픽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는 현실은 이전부터 생활하던 친숙한 주거지역에서 일상생활의 성격을 소멸시키고, 주변 지역에도 퇴거의 압력을 파급시킨다.³⁵

〈퇴거 사례 1〉 여성 고령자 A씨의 인터뷰, 「도쿄MX뉴스」³⁶

우리 집이 강행 공사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도영주택’에는

34 관련 자료는 주로 참의원·중의원 질의 내용, 도쿄도(東京都,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MG) 도시정비국 관련 자료, 주민설명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霞ヶ丘アパートを考える会, <http://kasumigaoka2020.blogspot.com/2016/>(최종 검색일: 2020. 7. 1.).

35 Loretta Lees, Hyun Bang Shin, and Ernesto López-Morales, *Planetary Gentrification*, John Wiley & Sons, 2016, p. 9.

36 「都営アパートの住民 立ち退きへ(五輪)」, *TOKYO MX NEWS*, 2014. 10. 10., <https://s.mxtv.jp/mxnews/kiji.php?date=201410108>(최종 검색일: 2020. 4. 10.).

욕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아이들도 자립해서 나갔지요. 이곳 학교를 나와 모두 제각기 독립했으니까, 고향이자 집이고, 나의 임종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거 통지를 받고는] 정말로 아닌 밤중에 흥두깨였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한 집 한 집 통지가 와 있어서…, [불편한 점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모두 한두 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이 먼 곳에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도 곤란합니다 … 이곳은 부서지겠지만, 아버지가 어떤 기분으로 거기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림 5〉 도영주택 가스미가오카아파트 원래 모습(왼쪽) 철거 직전 모습(오른쪽)
촬영 필자, 2017. 1. 11.

도쿄도 도시정비국이 주택을 해체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이미 의도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원래 초반에는 신국립경기장의 서부 부지를 확장해서 고상식(高床式) 인공지반을 연계한 입체공원을 정비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로서 ‘주민설명회 자료(일부)’에서 일본체육협회와 JOC가 공동으로 높이 60m의 거대 오피스빌딩(지하 1층, 지상 14층)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본체육협회 회관의 재건축과 가스미가오카아파트 해체 문제를 교환하는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 유착 의혹도 일부에서는 제기되었다. 결국 경기장 해체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채 뒤늦게 2014년 9월 12일 주민설명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도쿄도는 조나이카이(町内会)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쳤다는 입장이었지만, 행정 측의 ‘설명-협의-공지-납득’의 과정을 모두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다.³⁷ 도쿄도가 2012년 7월 중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안내문

37 稲葉奈々子, 「東京オリンピックと都営霞が丘アパート: 社会的排除と抵抗のかたち」, 『日本寄せ場学』

「국립경기장의 재건축에 따른 이전에 대해서」를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했지만, 과연 이것이 퇴거 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서 타당성과 행정적 강제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였다. 2014년 9월 8일 참의원(参議院) 의원 회관에서 실시된 도쿄도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질의에서 아파트 퇴거는 철저히 전문가회의 제언을 근거로 결정했으며, 도쿄도 자체가 이사안을 결정한 결재 문서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고령의 주민들로서는 거주권(헌법 제22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생존권(헌법 25조)과 관련된 문제였다. 즉 도쿄도가 주민들에게 정중한 설명과 대응보다는, 일부 주민들에 한정된 동의 등을 통해 퇴거시킬 ‘형식적 정당성’만 확보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 인터뷰 1>에 의하면 쫓겨나게 된 가스미가오카아파트 주민들이 집합행동을 지속해 나간 것은 아니었고, 재정착에 대한 도쿄도청의 공식화된 통계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는 인근 신주쿠의 다른 공영주택으로 이전했으며, 일부는 자녀의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소수이지만 고령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존재하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에게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어 이주에 성공한 이들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³⁸

<전문가 인터뷰 1> 이나바 나나코(稲葉奈々子) 교수 [2017.2.7. 화, 소피아(上智)대학]

이사를 원치 않는 주민들을 무시한 도쿄도에 대해 사람들의 원망이 쏟아졌어요. 충분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공개 설명회가 진행되었고, 거기서 마치 모든 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 행정 측이 한 집 한 집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했다면, 아마도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약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고령자분들도 계셨는데, 주거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집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세요. 주민들도 올림픽이 ‘국책사업’이니까, 도영주택에 사니까 협력해야 한

会年報』27, 61~75쪽.

38 「新国立競技場建設と都営霞ヶ丘アパート住民立ち退き問題に関する質問主意書(有田芳生)」, 2014. 9. 29.

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에 반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메이지공원 노숙자들의 퇴거 사례를 살펴보자(〈그림 6〉). 시민 단체들은 JSC와 도쿄도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이 강권적으로 발동한 ‘행정 대집행’으로 생활 기반이 통째로 빼앗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짐을 돌려줘라! 생활을 돌려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역의 ‘유지회’(有志会) 등과 함께

광범위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거주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성실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총 7회에 이르는 단체 교섭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 강제 배제 금지, 거주 기간 동안 공사 미진행 등 합의도 체결되었다. 당시 메이지공원의 노숙자들 중에는 남성과 여성이 혼재된 상태였는데, 여성 노숙자의 존재 자체는 파견노동 일상화와 가족·친족 관계의 소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중첩된 문제를 상징한다. 인터뷰에 응했던 활동가들 중 아티스트인 이치무라 미사코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노숙자의 존재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반올림픽선언』(反オリンピック宣言) 공동 저자 오가와 테쓰오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청년 빈곤, 노숙생활 권리 등을 주장해 왔다.³⁹

JSC는 2015년 7월 기존 신국립경기장계획안을 ‘백지 철회’한 뒤 공사 계획 변경에 대해 공원 관련자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12월 설명회(〈그림 6〉의 위)에서 과거 합의 사항은 ‘승계하지 않는다’라며 일방적으로 반려한 후, 노숙자들의 생활 기반을 빼앗는 강제 배제를 단행했다.



〈그림 6〉 메이지공원 철거배상소송⁴⁰(위), 200명의 집행관, 경찰관 등 강제배제(아래, 2016. 4. 16.)

출처: 小川てつお, 『特集「非情なるオリンピック」2 売られる公共の場 追われる野宿者』, 『DAYS JAPAN』, 2018年 12月号, 14쪽.

39 이치무라 미사코, 신지영 옮김, 『저 여기에 있어요: 노숙공동체를 떠난 한 여성에게 부친 편지』, 울버, 2009(いちむら みさこ, 『Dearキクチさん, -ブルーテント村とチョコレート』, キョートット出版, 2006); 小川てつお, 『オリンピックと生活の闘い』, 小笠原博毅·山本敦久 編, 『反東京オリンピック宣言』, 航思社, 2016, 111~132쪽.

2016년 4월 16일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사전에 매일같이 담당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진행되는 ‘집요한 설득’ 속에서 차츰 준비되었다. 쫓겨나는 날에 격한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2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점차 공원을 에워싸면서 집행되었다(〈그림 6〉의 아래). 그러나 JSC와 도쿄도의 대응 방식은 ‘헌법 제25조’와 ‘노숙자특별조치법’의 위반이며, 국제인권 규약은 물론 〈IOC 올림픽 무브먼트 아젠다 21〉의 위반이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 모두가 JSC의 강제 집행과 배제를 사실상 용인한 결과 노숙자들 대부분이 쫓겨나면서, ‘일본주택회의’, ‘국민의 주거를 지키는 전국연결회’, ‘주거 빈곤에 대처하는 네트워크’가 대항했다.

〈전문가 인터뷰 2〉 이치무라 미사코(ICHIMURA Misako)(여성, 1971년생, 2017. 2. 2. 목, 요요기(代々木)공원 근처)

저도 노숙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메이지)공원 여성분은 목소리도 작고 소극적인 분이셨는데,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생겼다고 할까요? 맨 선봉에서 마이크를 잡고 큰 목소리로 행정 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물론 행정 측이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의 생활공간을 없애려는 이유가 ‘도쿄 올림픽’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 행정 측은 원래부터 노숙생활자를 줄이려고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올림픽이 행정대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게 만들었고, 올림픽 반대 운동과도 손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도 평소에는 노숙생활자나 빈곤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지만, 반(反)올림픽이나 올림픽 관련 문제라고 ‘취재 요청’을 하면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40 Anti-2020 Tokyo Olympics Activists Launch Lawsuit over Eviction of Homeless Due to New National Stadium Construction, Posted on Mar 17, 2018 by William Andrews, <https://throwoutyourbooks.wordpress.com/2018/03/17/anti-2020-tokyo-olympics-activists-launch-lawsuit-eviction-homeless-new-national-stadium-construction/>(최종검색일: 2020. 4. 20.).

〈전문가 인터뷰 3〉 오가와 데쓰오(OGAWA Tetsuo)(남성, 1970년생, 2017. 2. 2. 목, 요요기공원 근처)

2000년대 중반 이시하라 도지사 시절, 도쿄도는 ‘홈리스 제로 작전’ 같은 정책을 펴기도 했지요. 2~3년간 월 3만 원의 월세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거처를 내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주택들은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도심에서 허드렛일을 찾는 노숙자들이 거주하기 어려워요. 당시 몇 백 건에 이르렀던 거대한 텐트촌도 이제는 21채로 줄었고, 이제 더 이상 신규 텐트는 세울 수 없어요. 물론 행정 담당자로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맞게 줄여야 한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 노숙생활자의 스펙트럼도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선택지는 노숙자와 복지 수혜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숙생활자들이 도쿄 도심의 파트 타임이라서, 여기를 떠나면 일자리도 없어요. …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요요기공원에도 대형 전광판을 세운다는 계획이 있어요 … (불안합니다).

2016년 10월 개최된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3차 유엔(United Nations, UN) 컨퍼런스 해비타트3(HABITAT III)’에서 일본의 주거 불안정 사례로서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여러 퇴거 문제들이 다뤄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 보고서의 ‘주택에 대해서’ 부분에는 2006년 주생활기본법 제정에 의해 주택의 양 확보에서 주택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주택 빈곤에 대한 기술 없음, 공영주택의 현황과 거주권의 침해, 대지진과 원전사고 피해자의 거주 문제, 주택 난민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주생활기본법에 존재해야 할 주택정책에 대한 제시, 주택 안전망이라는 해비타트의 이념에 부합한 정책 제시(고령자, 육아세대,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청년 단신세대를 포함한 저역소득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주택 확보를 촉구하는 등 정부 보고서와는 매우 대조적인 관점의 비판이었다.⁴¹

41 〈第3回国連人間居住会議(ハビタットⅢ)の開催にあたって：日本政府報告書の問題点と私たちの見

200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리먼 쇼크) 이후, 일본에서는 이른바 파견 깨기(派遣切り)⁴²로 인해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 파견촌(派遣村)이 개설되어 전국의 대도시권 공원 등지로 파급되었다. 즉 정부의 특조법과 같은 대처와 NPO의 협조형 자세가 결합되면서, 노숙자 문제를 둘러싼 공간적 조정인 일종의 리스케일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의 일환이었다. 흔히 공간연구에서 도시빈곤에 대한 위로부터의 공간 재편으로서 ‘리스케일’이란 개념은 법-정치적 문제의 사회권과 생존권의 관계가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적으로는 전후 일본의 국민국가 내부에서 노동과 소비를 중심으로 짜여진 균질화된 도시공간이라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주거 약자들에 대한 배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⁴³ 요컨대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국가·지자체·스포츠 기관들이 일체가 되어 도심의 공공공간(도영주택과 공원)에서 하층계급을 배제하고 비가시적 존재(invisible beings)로 만드는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4. 건설의 속도와 SDGs의 모순: 건축가의 신념과 공간의 인권 사이

이제 신국립경기장 건축 설계안 변경과 무리한 공사 스케줄이 공공공간에서 공간의 인권(생존권, 노동권, 도시권 등)이 침해되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간의 인권이란 해당 도시공간과 환경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

解, 2016年 10月 15日), <http://housingpoor.blog53.fc2.com/blog-entry-296.html>(최종 검색일: 2020. 5. 8.).

42 파견깨기(派遣切り)란 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파견 사원이 해당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처의 기업이 원래 파견의 인제파견회사와 맺었던 노동자 파견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제함으로써, 파견노동자는 인제파견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계약 변경이 거부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에서 고용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파견노동자의 중도 해고와 고용 중지가 다수 발생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참고 <https://kotobank.jp/word/%E6%B4%BE%E9%81%A3%E5%88%87%E3%82%8A-600698>(최종 검색일: 2020. 7. 8.).

43 Mahito Hayashi, “Times and Spaces of Homeless Regulation in Japan, 1950s–2000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4), 2013, pp. 1188–1212; 林真人, 『ホームレスと都市空間: 収奪と異化, 社会運動, 資本-国家』, 明石書店, 2014, 337–338쪽.

미하는데, 자본과 자본친화적인 지방 국가(local state)가 후원하는 개발자들이 제시하는 도시의 모습에 저항하는 도시사회운동은 공간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구성된다.⁴⁴ 건축가 구마 겐고는 신국립경기장 설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목조건축을 통해 ‘일본의 성숙된 건축 정체성’을 재설정하려는 포부를 밝혔다.⁴⁵

그는 2013년 도쿄 긴자(銀座) 가부키자(歌舞伎座) 리모델링 프로젝트나 유럽 최초 공공건축 프로젝트인 ‘브장송(Besançon) 예술문화센터’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구마 겐고는 반대 여론에 직면한 건축가에게는 대단한 예술가의 고압적 자세가 아닌 쉽게 설명하는 성의가 필요하며, 건축가의 운명이란 “일부러 ‘불 속에서 밤’을 चु는 것”(‘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의미도 포함)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으로 불타 버렸던 트라우마로 인해 목재에 대한 과도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건축학계는 목재 소재의 특성상 ‘내구성’과 ‘불연성’ 확보를 위해 한때 ‘탈(脫)목조’를 결의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무(natural wood)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콘크리트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목재의 등장을 촉진했다고 봤다. 구마 겐고는 21세기에 ‘대형 목조’ 개념이 건축계에 확산되어 탈산업사회의 커다란 트렌드라고 간주하고, ‘나무의 건축이라서 가능한 위대한 평범’이라 규정한 결과, 목조를 사용한 신국립경기장 건축이야말로 나무의 따스함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올림픽 건축에 임했다고 한다.⁴⁶

원래 구마 겐고는 일본 근대건축과 메타볼리즘(metabolism)을 주도했던 거장 단계 겐조(丹下健三)가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설계한 요요기 실내경기장이 가진 철골과 콘크리트로 건설된 웅장한 건축에 반해 건축가

44 Henri Lefebvre,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Writings on Cities*, Vol. 63, Oxford: Blackwell, 1996, p. 173; David Harvey, “The Right to the City,” *The Globalizing Cities Reader*, Routledge, 2017, pp. 289~293.

45 조현정, 「일본의 소주텍과 ‘작음’의 담론: 전후에서 탈전후 건축으로」, 『일본비평』 20, 2019, 246쪽.

46 隈研吾, 『なぜぼくが新国立競技場をつくるのか: 建築家・隈研吾の覚悟』, 日経BP社, 2016, 37~60쪽.

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진재와 2011년 동 일본대진재'라는 두 번의 재해를 겪으면서, 건축 재료로서 콘크리트 자체에 오히려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약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무'라고 봤다. 결국 도시는 나무로 돌아가야 하며,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진 목조건물의 신기술이라는 구조용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가 '목재'라는 소재를 신국립경기장 건설에 사용한 이유는 단순한 건축 재료뿐만이 아니라, 신궁외원 삼림에 경기장이 용해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그는 소형 카메라를 통해 경기장 모형을 다각도로 촬영해서 실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나무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도록 '사람의 시선'을 고려하려는 건축 신념을 표방하기도 했다.⁴⁷ 게다가 본래 경기장 설계에서 외벽에는 삼나무(杉)를,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에는 당송(唐松)의 사용을 결정한 것은 일본 국내산으로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목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외 환경NGO들은 2016년 12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하여금 '일본 정부와 대회 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올림픽조직위)가 환경을 배려한 목재를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라'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에서 위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벌채 목재의 수입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적 목재가 경기장 건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실제로 신국립경기장은 설계상으로 약 2,000㎡의 목재가 사용되는데, 다이세이(大成)건설사 등은 경기장의 차양과 지붕 집성재에 대한 목재로서 국산 삼림 인증제를 사용하는 방침에 따라 진행해 나갔다(그림 7).⁴⁸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굳힐 때 사용하는 거푸집

47 「チャレンジTokyo 隈研吾さんが描く2020年, 五輪・パラ/会場・設備/首都圏ネットワーク東京」, *MIRAI MAGAZINE*, 2016年 10月 11日, <http://www.nhk.or.jp/shutoken/miraima/articles/00533.html>(최종 검색일: 2019. 9. 20.).

48 「違法伐採の木材, 新国立で使用防げぬ可能性, NGO指摘(神田明美)」, 『朝日新聞』, 2016. 12. 5.



(그림 7) 신국립경기장의 내외부 모습: 목조 중심 내부 설계안(왼쪽), 공사 중인 모습(오른쪽, 필자 촬영: 2018. 3. 25.)
출처: The New National Stadium in Tokyo. 新国立競技場: 2018/01/16 <https://www.japan-experience.com/city-tokyo/new-national-stadium-tokyo>(최종 검색일: 2019. 10. 12.).

의 합판과 내장재까지는 미포함된 상태였지만 관련 목재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었다. 즉 그린구입법(グリーン購入法)은 ‘국가 등에 의한 환경 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법률’[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に関する法律, Act on Promotion of Procurement of Eco-Friendly Goods and Services by the State and Other Entities(Green Purchasing Law)]에 따라, 수입 합판 절반 정도인 목재에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 주(州) 현지에서 발행한 합법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그러나 삼림 벌채와 토지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자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열대우림 70%가 파괴되면서 관련 소송들도 진행되는 한편, 벌채업자가 선주민을 폭력과 칼로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사건들마저 잇따라 발생했다.

2015년 사라와크 주에서 수출된 합판의 59%가 일본에 수입되었는데, 2013년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RIIA)는 일본이 수입하는 종이를 제외한 목재 제품의 약 12%는 불법 벌채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결국 환경 관련 국제NGO가 신국립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며, 2017년 9월 도쿄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집결한 국제회의에서 일본기업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⁴⁹

49 Andreas Singer, *Tōkyō 2020: Olympia und die Argumente der Gegner*, Norderstedt: Books on Demand, 2019. 톨린슨은 재정 건축과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올림픽의 실적을 추적할 때 제안된 지속가능한 유산(sustainability legacies)을 일종의 위장 환경주의(greenwashing)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Alan Tomlinson, “Olympic Legacies: Recurrent Rhetoric and Harsh Realities,” *Contemporary Social*



〈그림 8〉 열대 우림 파괴와 도쿄 올림픽:

열대우림 파괴 반대 청원(위)

출처: Petition, 'Don't Sacrifice Our Rainforest for the Olympics!', <https://www.rainforest-rescue.org/petitions/987/dont-sacrifice-our-rainforest-for-the-olympics>(최종 검색일: 2019. 10. 15.).

IOC와 일본 비판(아래)

출처: Photograph Courtesy of the Bruno Manser Fund, <https://planetsave.com/2017/05/10/uproar-tokyo-olympics-construction-no-rainforest-destruction-human-rights-abuses/>(최종 검색일: 2019. 11. 15.)

인권비즈니스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CEO 존 모리슨(J. Morrison)은 목재를 공급하는 말레이시아 말단 업자에게 심각한 인권문제를 확인한 뒤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그림 8〉). 목재 조달을 둘러싼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형 상사(商事) 기업 소지쓰(双日, Sojitz)는 2년 전부터 목재 조달 부서 내 특별팀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의 거래처(1,500개사)의 인권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투명한 업자들은 전체의 약 20% 정도이지만,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업자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⁵⁰

Science 9(2), 2014, pp. 137~158.

50 「2500兆円超え!世界で急拡大"ESG投資"とは, NHK クローズアップ現代+, 2017年9月27日(水)」, <http://www.nhk.or.jp/gendai/articles/4039/>(최종 검색일: 2020. 4. 10.).

한편, 올림픽에 맞춰 무리한 일정의 공사가 지속된 결과, 2017년 3월 2일에는 신국립경기장 현장 감독으로 종사하던 23세 신입사원(남성, 입사 1년 차)이 실종되어 4월에 나가노현(長野県)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 청년 직원은 2016년 3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입사원 연수 후 대략 10여 곳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2016년 12월부터 신국립 경기장 공사에 배속되었다. 청년이 다닌 하청 회사는 경기장 부지 내 심층 혼합 처리 공법에 의한 지반 개량 공사(총 4개소)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일체를 담당했는데, 초반 회사는 잔업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속이기도 했다고 한다. 유족은 PC나 공사현장의 다른 기록을 참고해서 잔업시간을 재산출한 결과, 실종 1개월 전 시점 이 청년에게 심야 노동은 일상적이었음을 밝혀냈다.

법률대리인 가와히토(川人)법률사무소에 의하면, 2017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이 청년의 총노동 시간 수는 379시간을 초과했다. 2019년 11월이라는 촉박한 준공 목표와 어려운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회사의 지반 개량 공사는 원래보다 10일 지연되었다. 청년의 유서는 “몸도 마음도 한계인 나는 이러한 결과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¹ 유족들은 2017년 7월 12일, 과중 노동에 의한 정신 장애가 발병했다는 이유로, 노동기준감독서에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을 신청했다. 일본건설산업직원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건설관련산업노동조합연합회가 2016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건설 현장(외근 토목)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과로사 라인(월 80시간)’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 일본에서 건설업 종사 노동자가 정신 장애가 발병해서 피해보상보험이 인정된 건수는 2016년도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⁵²

2017년 8월 22일 건설 작업원 및 대학생 등과 함께 시민단체는 다이세

51 【日本】国際建設林業労組連盟, 東京五輪会場建設の劣悪労働を非難, 運営者に対策要求 2019/05/23, <https://sustainablejapan.jp/2019/05/23/tokyo-2020-workers/39769>(최종 검색일: 2020. 5. 2.).

52 新国立で過労自殺, 時間外200時間を会社「把握せず」(長谷川瑠子), 日経コンストラクションWeb版, 2017년 7월 24일.

이 건설사에 앞에서 무리한 공사를 재검토하도록 항의했는데, 이번 사건은 하청 회사에서 발생했고 다이세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전체 공사의 납기에 관여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항의 행동을 주도한 것은 그동안 ‘최저시급 1,500엔’ 등처럼 일본 젊은이들의 빈곤과 노동 문제를 제기해 왔던 청년 시민단체 ‘에키타스’(AEQUITAS)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⁵³ 결국 국제건설임업노동조합연맹(BWI)과 전국건설노동조합총연합회는 2019년 5월 15일,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의 건설에 종사하는 건설 노동자의 노동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다크 사이드(The Dark Side)〉를 발표했는데, 일본 전체로 건설 노동자 시장의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건설노동자는 과잉 노동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비인간적 노동조건과 과로로 인해 총 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한다.⁵⁴

2000년대 사회운동은 아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실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의 안보법안 반대운동 등처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확대되었다. ‘2020년 올림픽 거절 링크’(2020年オリンピックおことわりリンク!)와 ‘반올림픽모임’(反五輪の会, Hangorin No Kai)라는 이름의 반대운동 연합체는 올림픽을 일종의 ‘재해’(災害, disaster)라고 규정했다. 폭넓은 베테랑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 연합체는 운동의 양식, 낡은 언어에 새로운 양식을 갖춘 ‘사회운동의 클라우드화’(Cloudization) 현상으로서, 반(反)올림픽 행진이 나 쫓겨난 공원에서 식사하기, 점거해서 잠자기 등 다양한 집회를 통해 도시 빈곤 등과 관련된 이슈를 꾸준하게 제기해 나가고 있다.⁵⁵

53 「정치 혐오에서 참여로...일본국 청년들이 꿈틀대고 있소(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2016. 2. 23.

54 河合薫의 「社会を蝕む“ジジイの壁”」: 「月28日勤務」「危険な環境」東京五輪の建設現場に根付く“恐怖の文化”, #SHIFT by ITmedia ビジネスオンライン, 2019/05/24, <https://www.itmedia.co.jp/business/articles/1905/24/news021.html>(최종 검색일: 2020. 3. 10.); 小笠原博毅·山本敦久, 『やっぱりいらない東京オリンピック』, 岩波書店, 2019.

55 조경희, 「전후일본 70년과 복수의 평화주의: SEALDs의 운동과 정동」, 『사이間SAI』 20, 267~299쪽;

5. 맺음말: 올림픽과 공공공간

올림픽 조직위는 2017년 1월 「지속가능성에 배려한 운영 계획(제1판)」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5개의 주요 테마로서, 기후변화, 자원 관리, 대기·물·그린·생물 다양성 등, 인권·노동, 공정한 사업 관행에의 배려, 참가·협동, 정보 발신(계약)을 표방하였다. 2018년 6월 11일,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최대화하고 과제 해결의 모델을 국내외로 전파하기 위해 환경 대책 등의 목표나 시책을 나타낸 운용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배려한 운영 계획(제2판)」을 공표하면서, “Be better, together/보다 좋은 미래도, 함께 진행하자”는 컨셉을 내걸었다. 제2판에서는 2015년 UN총회에서 2030년 세계 목표로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공헌과 운영 계획의 실시·모니터링의 체제 등을 제시하면서 5개의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 목표와 시책을 기재하고 있다.

향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도 역시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가야 한다. 스포츠 관련 시설과 도시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골, 식료품 등 자원 조달은 물론이거니와, 과잉 노동, 장시간 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엔(UN)은 2006년 투자자가 가져야 할 행동으로서 책임 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밝히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관점에서 서구 기관투자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새 평가 항목으로 제시해서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SDGs 등처럼 국제적 표준에 맞추려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 공공공간의 축소와 퇴거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도 자각해야 한다.

William Andrews, Playful Protests and Contested Urban Space: the 2020 Tokyo Olympics Protest Movement, *The Asia-Pacific Journal*, 18(5), 2020, pp. 1~11; Ikuo GONOI, “The “Cloudization” of Social Movements: The Esthetic Approach to Protest through the Example of “Kawaii Direct Action”, *Japa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2, 2014, pp. 1~17; 反五輪の会(Hangorin No Kai) <https://hangorin.tumblr.com/>(최종검색일: 2020. 5. 10.).

일반적으로 1964년 도쿄 올림픽은 대대적인 인프라 중심의 도시개조를 통해 도쿄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기존 도심의 군용지 등을 요요기 공원 같은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유명하다.⁵⁶ 그러나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오히려 공공공간을 축소시키면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껏 일본에서 반올림픽운동은 올림픽 찬반론과 같은 대결구도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된 지금, 향후 도쿄도와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다시 새로운 문제제기나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올림픽 연기는 “과연 도심의 공공공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이제는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한편 반대운동 연합체는 ‘비가시적인 시민사회’(the invisible civil society)라고 일컬어지는 이들로서 일본의 교육시스템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대한 대항세력이 올림픽 선수촌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부담가능(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비율 증대 등처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반대운동 연합체의 활동은 집합행동과 데모는 활발하지만 다분히 ‘원론적인 올림픽 반대’에 그치는 일정한 한계도 드러냈다.⁵⁷ 따라서 이제는 21세기 성숙도시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공공공간을 축소하는 정책 대신에, 동아시아 도시의 대표주자로서 대안적 도시재생의 절차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도심 내의 노숙자운동이 직면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원에서 하나의 마을 만들기(ムラ作り)를 목표로 하는 노숙 활동가들과 관련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엄이 있는 노숙’이라는 자립 이미지로서

56 김은혜, 「1964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개조」, 『사회와 역사』 109, 2016, 229~257쪽.

57 Sonja Ganseforth, Anti-Olympic Rallying Points, Public Alienation, and Transnational Alliances, *The Asia-Pacific Journal* 18(5), 2020, pp. 1~9; Patricia Steinhoff, “The Uneven Path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David Chiavacci and Julia Obinger, eds.,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Activism in Contemporary Japan: Re-emerging from Invisibility*, Routledge, 2018, pp. 27~50.

노숙생활의 지속을 희망했다. 일본 노숙자운동의 유형화를 살펴보면, 노숙자상(像, 이미지)과 주된 문제를 ① 노동자/실업, ② 생활자/빈곤, ③ 마을 사람(ムラ人)/배제로 구분했다.⁵⁸ 그러나 여기서도 노숙생활 자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현실에서는 일자리 요구나 복지 의존, 쉼터나 노상, 집단생활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숙자에 대한 행정의 포섭과 사회운동 사이에는 여러 겹의 이해관계의 갈등도 발생한다. 대항 그룹에는 다양한 정치적-예술적 스펙트럼이 혼재된 한계도 있어, 단결된 집합적 사회운동과 함께 실질적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은 헤리티지 존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신국립경기장과 인근지역의 공간적 변화를 가져왔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메이지공원의 노숙자들과 도영주택 가스미가오카아파트 같은 공공공간에서 거주자들은 쫓겨나게 되었다. 또한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는 목재의 출처를 둘러싸고 환경법 적용의 문제와 함께 목재 산출지인 말레이시아 원주민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무리한 일정의 공사가 가속화되어 2017년 3월에는 건설사 하청업체 20대 청년 직원의 과로자살사건마저 발생했다. 신국립경기장을 둘러싼 중첩된 공간적 갈등은 개별 인간들의 신체(body)와 친숙한 집(home),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는 지방-국가적(local-national) 스케일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다. 또한 신국립경기장 건설이 의도치 않게 동아시아 원주민의 삶을 위협했던 것은 지역적-지구적(regional-global) 스케일의 퇴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만약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한다면, 향후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은 공허하고 화려한 슬로건보다는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58 山北輝裕, 『(質的社会研究シリーズ7) 路の上の仲間たち: 野宿者支援: 運動の社会誌』, 16~17쪽.